

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?

새로운 단어를 찾습니다: 4천만 부가 팔린 사전을 만든 사람들

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?

'21년 4월 '김영하 북클럽*'에 소개된 책입니다. 당시 소개 글은 이러했습니다.

"두 라이벌 사전편찬자의 일생을 다룬 논픽션으로, 사전 편찬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 있다는 것에 우선 놀라게 되고, **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**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책이기도 합니다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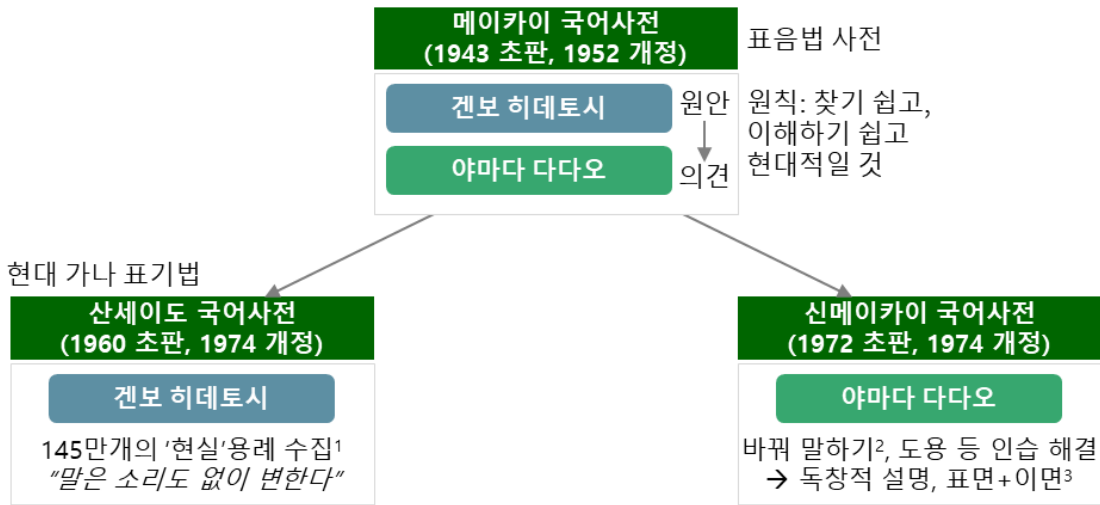
*인스타그램에서 매월 한 권씩 선정해 공유한 뒤, 월말에 작가의 라이브 북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. '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', '소설(제임스 미치너)'처럼 작가 입장에서 소개한 목록이 흥미롭습니다. (계정: Instagram @kimyoungclub_official)

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,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읽어주세요.

세상(世の中)

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미워하는 사람,

성공한 사람과 실의에 빠지고 불우한 사람이 구조상 동거하고, 항상 모순에 차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사회 - **신메이카이 국어사전**



1. "한 달에 400개 용례를 모은다면, 1년에 5천개, 20년이면 고작 10만개" 축적한 용례만으로 1년 만에 사전 집필
2. 사랑: 사모하는 것 → 사모: 연모하는 것 → 연모: 사모하는 것
3. 공약(公約) 정부 정당 등 공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일 [금방 깨지는 것에 비유된다] 청렴(淸廉) 마음이 맑고 사욕이 없는 것 [관리 등이 드물게 뇌물 등에 움직이지 않을 때 하는 말] / 바보

말의 사생(寫生): '단어의 이미지'는 생활과 함께 하고, 일상의 경험 속에 있다. 여기서 생각한 것이 '말을 말로 사생하는' 방법, 줄여서 '말의 사생'이다. → **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** (p.140)

메이카이 국어사전	산세이도 국어사전
물(水) 수소 2, 산소 1의 비율로 화합한 무색·무미의 액체. 지표면의 대부분을 덮고 있다.	물(水) ①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투명한 고 차가운 액체

말을 스케치하듯이 표현하는 것. 어려운 용어법을 쉽게 풀어 끝까지 밀어붙인, 최대한 실질적인 표현을 노린 하나의 시안. 본래 중학생용 학습사전으로 시작했기에 '중학생이 물어왔을 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'하는 시점에서 뜻풀이를 적을 필요. 그러나 어른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.

책이 좋았던 이유와 감상에 대해 말해주세요.

Ground Rule의 중요성. 사전 또한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단어를 풀이하고, 시선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이 (그런 사전이 있다는 것이) 놀라웠던 책.

1) 나라면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할까?

사랑(愛) ① (상대의 행복이나 발전을 바라는) 따뜻한 마음 - *산세이도 국어사전*

- 나라면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할까? 만약 4살 조카에게 설명한다면?
- 사랑은 네가 아프지 않고 잘 크길 바라는 마음이야. 엄마는 네가 감기에 안 걸리게 이불을 덮어주고, 이모는 네가 넘어지면 "괜찮아?" 하고 달려가. 그런 마음이 사랑이야.

2) 문화적 밀도의 차이

*"사전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작은 모형이다. 우리는 우주 전체를 '말'을 통해서 인식한다(...)
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사전을 보면 알 수 있다." (p.378)*

사전 외에도, 어떤 국가의 모습("세계")를 보여주는 분류 체계가 하나 있다.

관세 부과를 위한 HS Code 수출입코드는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이고, 뒤의 4자리는 각 국가가 자율적으로 정한다. 그래서 국가마다 어떤 상품에 더 많은 분류를 더하는지를 보면 그 사회의 산업이나 문화, 일상에 대한 시선이 드러난다. 같은 품목에서도 어떤 나라는 6자리까지만 분류하고, 어떤 나라는 더 자세한 세분류를 추가한다. (예: 터키는 사탕류, 일본은 조개류가 다양함) 이 분류 기준의 차이는 사실상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더 자주 사용하고, 중요하게 여기고, 다양하게 인식하는가를 보여준다.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밀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체계이기도 하다.